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고려인 학자들과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

칼리나**

〈차 례〉

1. 서론
2. 모스크바 동양학대학과 고려인 학자들
3.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의 체계와 내용
4.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의 특성
5. 결론

[국문초록]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Пак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홍김표 레아니드 페트로비치(Хон-Ким-Пио Леонид Петрович), 김(Ким)은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본고는 이 세 학자의 삶을 소개하는 한편, 그들이 집필한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УЧЕБН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РС 1 ЧАСТЬ 1)(1932)의 체계, 내용, 그리고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모스크바 최초의 대학용 한국어 교재는 1946년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출판부에서 발행된 황동민의 『한국어 교과서 제1편』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은 당시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극동학부에서 한국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1932년 동일한 출판부에서 발행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이 모스크바 최초의 대학용 한국어 교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이 세 학자가 모스크바에서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했음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후대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학자, 한국어 교과서, 체계, 내용, 특성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2184).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1. 서론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Пак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홍김표 레아니드 페트로비치(Хон-Ким-Пио Леонид Петрович), 김(Ким)은 모스크바 동양학대학(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본고는 이 세 학자의 삶을 소개하는 한편, 그들이 집필한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УЧЕБН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РС 1 ЧАСТЬ 1)』의 체계, 내용, 그리고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홀로도비치, 마주르, 구세바, 니콜스키 등 소련의 저명한 한국어학자들과 계봉우, 오창환, 김병하와 같은 고려인 학자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¹⁾ 이들의 삶과 연구업적에 대한 논문도 여러 편 발표되었다. 김혜란(2022)은 한국어 교과서를 시대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미하일 푸칠로(М. П. Пуцилло), 바실리 피양코프(В. Пьянков), 김병옥, 니키타 쿠즈민(Н. Д. Кузьмин), 황동민, 김병하, 한득봉, 한순천, 홀로도비치 등이 저술한 한국어 교과서와 문법서를 소개하였다. 특히, 김혜란(2022)은 모스크바 최초의 대학용 한국어 교과서로 알려진 『한국어 교과서 제1편(Учебный материал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1)』(1946)과 『한국어 참고서 제2편(УЧЕБНЫЙ МАТЕРИАЛ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2)』(1947)을 다루며, 두 교과서 모두 황동민이 저술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혜란(Ким Х.) (2022)은 러시아 한국학의 선구자인 황동민의 『한국어 교과서 제1편』(1946)을 소개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룬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 홍김표, 김과 그들이 집필한 한국어 교과서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1) 러쓰 킹·연재훈(1992)에 따르면 옛소련 내 한인들은 그들의 역사적 배경이나 언어적 배경에 따라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부류는 '고려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1800년대부터 연해주에 이주해 기반을 두고 살다가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사할린 출신 한인들이다. 그들의 상당수는 한국의 남쪽 지역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며,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에 일본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로 이송된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류는 북한 출신 사람들이다. 그들은 1946년부터 1960년 사이에 북한에서 노동자나 유학생으로 소련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정착한 사람들이다. 한인들이 옛소련에 이주한 시기를 근거로 볼 때,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 홍김표, 김은 고려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러쓰 킹·연재훈, 『중앙 아시아 한인들의 언어 - 고려말』, 『한글』 217, 한글학회, 1992, 88-89쪽.

본고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세 학자가 모스크바에서 한국어 교육 발전과 보급에 기여했음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후대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들이 집필한 교과서는 1930년대 소련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자 했는지를 이해하는데에 필요한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교과서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본다.

2. 모스크바 동양학대학과 고려인 학자들

모스크바에서의 한국학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 중 하나인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이 대학의 역사는 1815년 라자레프 동양어학교(Лазаревское училище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의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자레프 동양어학교는 아르메니아 학생들을 위한 기관으로, 아르메니아어, 페르시아어, 오스만어, 그루지야어, 터키어, 아랍어 등의 언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학교 이름은 아르메니아대학, 페르시아대학, 살아있는 동양어중앙대학 등으로 여러 번 변경되었다. 1921년 라자레프 동양어학교와 모스크바의 다른 동양학 기관들이 합병되어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이 설립되었다. 1945년까지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는 한국학과가 없었다. 토르쿠노브(2015:222-225)에 따르면 1922년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의 극동학부에는 중국어계와 일본어가 있었다. 중국어계에는 북부 중국어, 남부 중국어, 한국어와 몽골어가 포함되었다. 1930년대에는 한국어 강좌가 있었으나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²⁾

비록 한국어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고려인들은 러시아 초기의 한국어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바로

2) Торкунов А. В., *Главы из истории московского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Лазаревский институт -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 МГИМО*. Под общ. ред. Академика РАН А. В. Торкунова. -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пект Пресс», 2015, С. 306.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이라는 교재인데 이 교재의 서문에 따르면, 1930년대에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서는 외국어 교육 체계의 재구성을 위해 외국어 교재 총서를 기획하였으며, 본고에서 다룬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도 이 총서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 교재는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 홍김표, 김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1932년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되었다.

이 교재의 체계와 내용, 특성 등 논의에 앞서 우선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 홍김표, 김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겠다.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와 홍김표는 소련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였다.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1899-1938)는 일본학 및 한국학 연구자이며, 기자 및 작가로도 활동하였다. 1899년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서 경제학 부교수 및 연구원으로 일했으나, 학문적으로 오래 활동하지는 않았다. 그는 1934년 5월 23일과 1937년 12월 16일 두 번에 걸쳐 체포되었고 유죄 판결(조항은 명시되지 않음)을 받아 1938년 1월 19일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김 니콜라이(Н. Ким)라는 가명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아래: 현대 한국에 대한 개요(Под гнетом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Очерк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1926)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농업 전선에서, 소련의 동양학 등 월간지에 「일본의 토지 소유 집중(Концентрация землевладения в Японии)」(1928), 「한국의 농업 관계 개요(Обзор аграр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Корее)」(1928), 「한국에서의 일본 정책의 진화(Эволюция япон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Корее)」(1929), 「한국 농업에서의 일본 자본(Японский капитал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Кореи)」(1930) 등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³⁾ 본고에서 소개하는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은 그의 마지막 업적으로 추정된다.

홍김표(1884-1938)는 188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가 언제, 어떻게 소

3)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에 대한 이력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2025년 1월 19일 검색)
[https://ru.openlist.wiki/Пак_Николай_Васильевич_\(1899\)](https://ru.openlist.wiki/Пак_Николай_Васильевич_(1899))
<https://bessmertnybarak.ru/books/person/513854/>

련으로 건너갔는지, 어디서 생활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러쓰 킹 · 연재훈(1992:88)에 따르면 1800년대부터 한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홍김표도 역시 소련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소련에서 활동하는 동안 홍김표를 성으로 사용하고 홍김표(성) 레아니드(이름) 페트로비치(부칭)라는 러시아식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는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서 부교수(교사)로 근무했다. 1927년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출판부에서 『일본 문자 학습 교재』(원제목: 日本文字書方手習(Пособие к изучению япон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를 출간했는데 표지에 적힌 저자 이름은 한자로 洪建杓였다.⁴⁾ 성함은 홍건표인데 키릴 문자로 홍김표(Хон-Ким-Пио)로 적은 것이 특이하다. 그는 1932년의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을 이어 1936년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출판부에서 『필기체 상형문자 소사전(Краткий словарь скорописных иероглифов)』을 출판하기도 하였다.⁵⁾ 한편, 1938년 3월 24일, 그는 일본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내무인민위원부(НКВД)와 소련 검찰청 특별위원회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938년 5월 31일에 모스크바에서 처형되었다.⁶⁾ 명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의 업적이 발행된 시기와 체포된 시기를 보았을 때, 홍김표는 1927년 이전부터 1938년 초까지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서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동 저자인 김(Ким)은 교과서 표지에 성만 적혀 있을 뿐, 아무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김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소련에서 활동했던 김 씨 중 김 로만 니콜라예비치(Ким Роман Николаевич)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그는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와 같이 1899년생으로, 1930년대에

4) 洪建杓(Л. П. ХОН-КИМ-ПИО), 日本文字書方手習(Пособие к изучению япон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Труды Моск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осква, 1927.

https://catalog.libfl.ru/Bookreader/Viewer?bookID=BjVVV_1057095&view_mode=LQ#page/1/mode/1up (2025년 2월 15일 검색)

5) Хон Ким Пио, Краткий словарь скорописных иероглифов,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м Нариманова, Москва: 1936, 209с, 23см. 러시아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6) 홍김표에 대한 이력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2025년 1월 19일 검색)

[https://ru.openlist.wiki/Хон-Ким-Пио_Леонид_Петрович_\(1884\)](https://ru.openlist.wiki/Хон-Ким-Пио_Леонид_Петрович_(1884))

<https://bessmertnybarak.ru/books/person/513854/>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바실코브 · 소로키나(2003)에서는 김 로만 니콜라예비치(1899-1967)를 일본학 및 중국학 연구자, 작자로 소개하였다. 189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난 김 로만 니콜라예비치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1907년부터 1917까지 일본 도쿄에서 공부하고 1923년 블라디보스토크대학교(Владивосток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즉 현재의 극동연방대학(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모스크바로 초청되어 1923년부터 1930년까지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서 중국 및 일본 문학을 강의했다.⁷⁾ 그의 업적은 대부분 일본 문학과 관련된 것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어 교과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의 공동 저자인 김이 김 로만 니콜라예비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는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김 로만 니콜라예비치는 1937년 4월 2일 정치적 탄압으로 체포되었고 1940년 7월 9일 소련 최고군사법원에 의해 20년 형을 받았다. 그러나 1945년 9월 10일 소련 최고군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1940년 7월 9일 형이 취소되었다.

이 세 학자의 노력 끝에 러시아 초기의 한국어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그 후, 홀로도비치가 1935-1936년에 걸쳐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서 개설하였던 한국어강좌의 강의노트를 토대로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асть I Морфология)』이라는 이론 문법서를 출간하였다.⁸⁾

광복 이후 1945년 9월, 황동민의 주도로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극동학부에 모스크바 최초의 한국학과가 설립되었다.⁹⁾ 이때 에. 엠. 최(Е. М. Цой), 한득봉, 황윤준 등 고려인 학자들이 초청되어 한국어와 한국문학, 한국사 등

7) Васильков В. Я. & Сорокина М. Ю., *Люди и судьбы: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востоковедов -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ого террора в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1917-1991гг.*,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2003.

8) 金敏洙 · 高永根 · 崔鎬哲 · 崔炯龍 편, 『歷代韓國文法大系(Ⅱ)』 第2部 第46冊, 박이정, 2015; A. A. 홀로도비치의 『한국어문법. 제1부 형태론』에 대한 소개 글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Торкунов А. В., 앞의 책, С306.

한국학 관련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¹⁰⁾ 1946년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출판부에서 황동민의 『한국어 교과서 제1편』이 발행된 이후부터 수많은 한국어 교과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 고려인 학자들의 지도로 마주르, 콘체비치, 프미트리예바 등 러시아 저명한 한국학자들이 배출되었다. 1954년 8월 학교가 폐교되면서 한국학과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 등으로 전입되었다. 모스크바에서 최초의 한국학과가 설립된 이후 체계적인 한국어 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황동민의 『한국어 교과서 제1편』은 모스크바 최초의 한국어 교과서로 알려졌다. 본고에서 다룬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은 당시 극동학부에서 한국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1932년 동일한 출판부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교재가 모스크바 최초의 대학용 한국어 교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의 체계와 내용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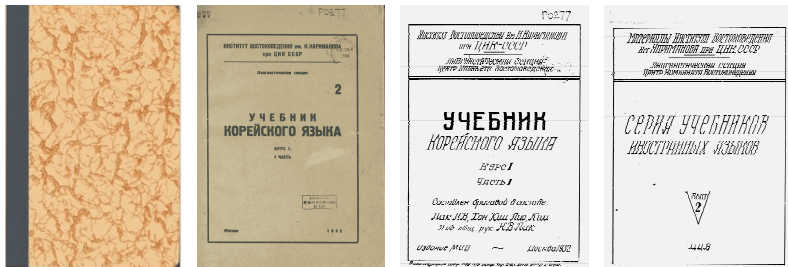
1) 체계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은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 홍길표, 김이 공동 집필한 교재로 1932년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출판부에서 발행되었다.¹¹⁾

10) Концевич Л.Р.,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б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а также учителях, определивших мой выбор профессии корееведа и повлиявших на мою судьбу”,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Том 3. Современное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справочное издание*. Сост. Т. Симбирцева, Л.Р. Концевич. М.: Первое марта, 2006, С305. Дмитриева В.Н., “О днях бывших москов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уск 3*. Москва, 2003, С78.

11) 이 교과서의 디지털 파일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홈페이지 동아시아 아카이브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러시아 1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당시 학교는 나리마노브 동양학 대학(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м. Н. Нариманова)으로 불렸다. 이 교재는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언어학부 동양학 중앙 연구실(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секц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Кабине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에서 기획한 외국어 교재 총서 중 제2권에 해당한다. 교재의 표지에는 서지 번호 P0277이 표시되어 있으며, 속표지와 교재 내부(p.17)에는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도서관의 도장이 찍혀 있다. 교재의 겉표지와 속표지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사진1〉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의 표지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은 서문과 함께 총 130페이지로 구성되며, 1-13과를 포함하고 있다. 각 단원은 본문, 한국어-러시아어 대역 자료, 과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각 단원이 개별적인 제목 없이 단순히 ‘제一, 第二, 第三, 第四, 第五, 第六, 第七’ 등으로 번호가 매겨졌다는 것이다. 본문은 세로쓰기 형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성되었고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한글을 키릴 문자로 표기하지 않았다. 한-러 대역 자료와 과제는 가로쓰기 형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성되었다. 1과에서는 자음과 모음, 한글 읽기와 같은 한국어 입문 내용을 제시하였고, 2과부터는 25-30개의 응답문 또는 평서문 형식의 문장들이 제시되었다.

2) 내용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은 러시아 1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이므로 입문과정(1과), 기초과정(2-6과), 심화과정(7-13과)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과는 입문과정으로 한글 익히기와 읽기로 이루어졌다. 아래 <표1>과 같이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먼저 제시한 다음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단어들(제1:3-8)이 나열된다. 그 다음으로 번호가 매겨지지 않은 12줄의 어휘들이 제시되는데 이는 받침 교육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줄, 4-5줄, 7-8줄, 10줄은 ‘가, 나, 다, 라, 마, 파, 사, 아’에 각각 받침 ㄱ, ㄴ, ㄷ, ㄹ, ㅂ, ㅅ, ㅇ이 결합된 단음절 어휘들이다. 3, 6, 9줄은 각각 받침 ㄱ-ㄴ/ㄴ-ㄱ, ㄷ-ㄴ/ㄷ-ㄹ/ㄴ-ㄹ/ㄴ-ㅂ/ㄷ-ㅂ, ㅅ-ㄴ/ㅅ-ㄴ/ㄷ-ㄱ/ㅅ-ㄴ이 결합된 2음절 어휘들이다. 11줄은 받침 ㅌ, ㅊ, ㅎ, ㅍ, ㅈ이 결합된 단음절 어휘들이며 마지막 줄은 ‘닭만, 상만, 강만, 닭을, 원을, 판에, 궤에, 꺾지, 붉은’과 같이 조사나 어미가 결합된 어휘들이다. 받침 교육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ㄷ받침의 예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ㅌ, ㅊ, ㅎ, ㅍ, ㅈ받침 중 ㅍ받침만 [비]로 발음되지만 ㅌ, ㅊ, ㅎ, ㅈ받침과 함께 묶여 있다는 점, 겹자음으로 ‘러’와 ‘ㄱ’만 제시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1과를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의 1과

제1	1. ㄱ ㄴ ㄷ ㄹ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2.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3. 가다. 자다. 사다. 파다. 보다. 아이. 서다. 주다. 오다. 4. 죽다. 먹다. 벽. 산. 술. 밥. 상. 5. 새. 개. 담배. 외. 귀. 6. 쓰다. 빠르다. 짜다. 7. 땅. 떡. 붉다. 책. 많다. 닭. 원. 관. 궤. 8. 꺾다. 꺾다. 가. 나. 다. 라. 마. 박. 사. 악. 간. 난. 단. 란. 만. 반. 산. 안. 각반. 단락. 만삭. 악만. 락만. 각만. 갈. 날. 달. 랄. 말. 발. 살. 알. 감. 남. 담. 람. 맘. 발. 삼. 알.
----	---

	딸만. 달만. 달밤. 안남. 갈삼. 갑. 남. 닭. 람. 맘. 밥. 삼. 압. 갓. 낫. 닷. 략. 맛. 밧. 샷. 앓. 낮만. 닭만. 발악. 압만. 삼만. 강. 냥. 당. 랑. 망. 방. 상. 양. 발. 맛. 좡. 앞. 쫓. 닭만. 상만. 강만. 닭을. 원을. 판에. 껌에. 꺾지. 붉은
--	---

2과부터 6과까지는 기초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단원들은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들로 시작하여 단문 형식의 응답문이 제시되며, ‘이것이 무엇ियो?’, ‘동무가 누구요?’, ‘동무가 어대루 가요?’, ‘점심에 국을 먹었소.’, ‘모스크바의 시장과 상점’ 등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2-3과에서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단문이 제시되고 4-6과에서는 주어와 서술어뿐만 아니라 목적어와 부사어를 포함한 단문이 제시된다. 6과는 한국어 고유어와 ‘市場, 共利社, 男子, 女子’ 등 몇몇 한자어가 혼용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단원에서는 모스크바의 시장과 상점에 대한 문장들이 등장하는데 상점을 ‘공리사(共利社)’라고 부르며 옷, 신발, 소고기, 떡 등 다양한 상품이 많다고 설명한다. 흥미로운 점은 1930년대에 소련의 상점에서 ‘떡, 흰떡’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모스크바에 고려인이 일정 규모 이상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인이 직접 만든 조선 식품을 상점에서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6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¹²⁾

〈표2〉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 2-6과 본문의 일부

제二	1. 이것이 무엇ियो? 그것은 조희오. 2. 저것이 무엇ियो? 그것은 철필ियो. 3. 누구가 가르치오? 교원이 가르치오. 4. 교실이 몇ियो? 교실이 하나ियो. 7. 철필이 몇이있소? 철필이 넷이있소. 8. 교원이 몇사람ियो? 교원이 다섯사람ियो. 9. 몇학생이 배호오? 여섯학생이 배호오. 21. 무엇이 있소? 조희와연필이 있소.
----	---

12) 교재의 본문을 원문 그대로 옮겼다. 다만, 종이에 공백이 있는 관계로 줄바꿈은 필자가 했다.

제三	1. 동무가 누구요? 나는 교원이요. 3. 교원이 몇사람이요? 교원이 십호사람이요. 6. 교장이 누구요? 교장은 감바롭푸요. 10. 벽신문이 있소? 벽신문이 석장이있소. 12. 그림이 몇장이요? 그림이 마흔장이요. 14. 저사람이 무엇하오? 그사람이 쉬오. 16. 학생이 소? 학생이 자오. 25. 연필이 얼마요? 연필이 일백원다섯이요.
제四	1. 동무가 어대루가요? 2. 나는 집으루가요. 3. 당신의 집이 어대에 있소? 나의 집이 학교뒤에 있소. 4. 시계가 누구에게 있소? 시계가 저동무 에게 있소. 6. 동무가 어대루 가요? 나는 구락부 루 가요. 8. 나는 아침에 집에 있었소. 9. 학생이 어대에 앉았소? 학생이 결상에 앉았소. 21. 어제아침때에 일기가 좋았소.
제五	1. 점심에 국을 먹었소? 예. 점심에 배채국을 먹었소. 3. 햄새를 만들겄소? 감자햄새를 만들겄소. 4. 아이가 밥을 먹소. 소고기는 맛이 있소. 8. 당신이 비누를 사겄소? 비누물에 수건을 깻소. 12. 리발소에서 마리를 깻았소. 그동무는 학교리발소에서 수염을 깻소. 20. 동무의책에서 그그림을 보았소. 오늘점심에 감자국을 만들겄소. 21. 동무가 담배를 피우겄소? 누구에게 담배가 있소? 예. 나에게 있소. 25. 철필과연필을 학생에게 주었소.
제六	1. 모스크바에 큰市場은 어느市場이요? 예. 큰市場은 숙하렘까지장이요. 2. 市場에서 무엇을 파오? 시장에서 소젖을 파오. 3. 共利社가 큰거리에 있소. 공리사에 상품이 많소. 4. 共利社에 男子의옷과女子의옷이 있소. 상점에 흰신발과검은신발이 많소. 8. 共利社에서 떡을 길로 로 파오. 12. 共利社에서 흰떡 한길로에 얼마식 하오? 共利社에서 흰떡 한길로에 三十전식 하오. 14. 市場에서 구주값이 얼마요? 市場에서 구주값이 五十원이요. 15. 共利社상점을 몇시에 여오? 共利社상점을 아흐닐곱시에 여오. 18. 市場에서 외투를 얼마식 하오? 市場에서 좋은외투는 三백五十원식 하오. 19. 共利社에서 소고기 한길로에 얼마식 하오? 共利社에서 소고기 한길로에 一圓二十전식 하오.

7과부터 13과까지는 심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단문 형식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복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단원들은 주로 소련의 사회적 성격과 사회주의적 배경, 그리고 일제강점기 조선의 상황에 대한 문장들로 구성되었다. 7-8과는 소비에트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저자들은 ‘우리의소비에트國家’, ‘우리國家’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9-10과에서는 모스크바의 교통수단과 조선의 우편국 및 전보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9과에서는 모스크바

가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갖춘 도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25개의 문장 중 ‘조선으러鐵路가 통하엿습니다.’(제九:5)와 같은 흥미로운 문장이 발견되는데, 이를 통해 1930년대 모스크바-조선 철도가 개통되어 소련과 조선 간 왕래가 가능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조선항구에日本汽船들이많이있습니다.’(제九:22)라는 문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0과는 조선의 우편국과 전보국에 관한 문장들이 제시되었는데, 이 교재에서 조선을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단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11-13과는 공통적으로 군대와 군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11과는 붉은 군대, 12과는 자본국가의 군인, 13과는 적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7-13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표3〉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 7-13과 본문의 일부

제七	10. 資本國家에는 勞働賃金이 매우 적소. 11. 우리의쑸베트國家에는 失業者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12. 資本國家에는 失業者가 많소. 13. 우리의쑸베트國家에는 勞働賃金이 매우 높습니다. 14. 쑸베트主權은 勞働者들손에 있습니다. 15. 붉은主權은 쑸베트主權이오. 17. 우리國家에서는 産業이 매우 향상되오. 18. 오늘날에 生産力이큰國家는 우리國家입니다. 19. 쑸베트農村에서는 밭을 트랙틀로 갑니다.
제八	6. 資本國家에는 生産의計劃을 作成하지못합니다. 8. 쎄. 쎄. 쎄. 르에서五年計劃을四年에實行하엿습니다. 資本國家에서는 이計劃을四十年에도實行하지못합니다. 10. 돌재五年計劃에는勞働者들과農民들의形便이 매우 向上되겡습니다. 資本國家에서는勞働階級の形便이向上되지아니합니다. 14. 쎄. 쎄. 쎄. 르에서폴호스運動이 장성합니다. 지금資本國家에서는生産業이 長成되지못합니다. 16. 쑸베트國家는産業에勞力을 잘 조직하엿습니다. 資本國家에서는勞働者의勞力을조직하지못합니다. 18. 勞働者들은工場에서 社會主義경쟁으로일을합니다. 資本家들은勞働者의賃金을높이지아니합니다. 22. 쎄. 쎄. 쎄. 르에서 勞働者들의技術이 매우 向上되엿습니다. 資本國家에서는 勞働者에게 技術을가르치지아니합니다.
제九	1. 모스크바거리에는 自動車가 많습니다. 2. 동무가학교루自動車에 아가갯습니까? 나는 학교루電車에아가갯습니다. 4. 나는 모스크바루汽車에 아가갯습니다.

	5. 조선으러鐵路가 통하였습니다. 12. 세, 세, 세. 르에서는 航空隊事業이 잘발전됩니다. 14. 飛行場에 飛行機가 많이 있습니다. 15. 汽車와 汽船은 蒸氣 힘으로 운전합니다. 22. 조선항구에 日本汽船들이 많이 있습니다. 23. 日本勞働者들의 經濟形便은 向上되지 못하여 갑니다. 24. 나는 여름에 鐵工場에서 實地事業을 하겠습니다.
제十	3. 나는 어제 朝鮮에서 오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4. 朝鮮에 文化發展이 잘되지 못하였습니다. 5. 郵便局長이 暗号로 편지를 警察署로 보내었습니다. 6. 日本警官들이 朝鮮에서 勞働者들의 집을 수색합니다. 9. 朝鮮郵便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日本사람들입니다. 10. 나는 김으러 편지를 등기로 붙이었습니다. 11. 저동무는 오늘 아침 열시에 郵便에서 엽서와 우표와 봉투를 사았습니다. 12. 우리 학교에 電話가 많이 있습니다. 13. 郵便局長은 그일을 警察署에 電話로 말하였습니다. 14. 日本警察들은 朝鮮勞働者에게서 비밀편지를 압수합니다. 15. 暗号로 쓴 電報의 內容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18. 日本警察들이 共產主義者들을 포착합니다. 21. 電報局에서 事務員들이 電報를 받습니다. 23. 우리는 朝鮮經濟를 研究합니다.
제十一	1. 붉은 군대는 勞働者와 農民으로 조직되었습니다. 3. 붉은 軍隊는 軍人들에게 交양事業을 實行합니다. 4. 붉은 軍隊의 조직을 보면 分隊, 小隊, 中隊, 大隊, 聯隊, 師團, 軍團이 있습다. 5. 勞働者와 農民들은 徵兵이 된 후 軍隊에 있는 二個年間に 交양받은 것이 적지 않니합니다. 6. 붉은 軍人들은 除隊한 후 집으러 가면 群衆에게 많은 선전을 합니다. 7. 제국主義가 우리 소베트國家를 침범하는 것을 붉은 軍隊의 힘으로 防備합니다. 18. 붉은 軍人은 除隊하면 집에 가아 群衆에게 軍主 交양事業을 합니다. 19.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우리 소베트國家를 守備하는 것은 소베트國民의 일입니다. 20. 國防事業에 힘쓰지 아니하면 제국주의가 우리를 침범할 것입니다. 22.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소베트를 守備하는 사람은 勞働者와 農民들입니다. 24. 규율이 있는 붉은 軍隊는 큰 승리를 가지어 올 것입니다.
제十二	8. 당신이 무슨 때문에 이 끝으러 오았소? 나는 포로되었기 때문에 이 끝으러 오았습니다. 9. 당신이 資本國家의 軍人이 무엇인 것을 아오? 예, 資本國家의 軍人이 資本家의 종인 것을 아오. 11. 軍隊에 服務한 지 몇 해나 되었오. 軍隊에 三年 동안 服務하였습니다. 12. 당신들이 生活하여 가는 事情이 어떠한오? 우리의 生活하여 가는 事情은 말할 형편 없습니다. 13. 資本家들의 壓迫과 搾取가 심하여 勞働者와 農民들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으니 資本家들의 종으로 삽니다. 16. 資本家들이 소베트를 침범할 準備를 많이 합니다. 19. 당신이 그들의 作戰計劃을 아오? 作戰計劃을 잘 모릅니다. 장교들이 늘 세, 세, 세. 르를 攻擊해야 승리할 것을 軍人들에게 선전합니다. 20. 資本家들의 壓迫과 搾取가 심하기 때문에 勞働者와 農民들은 그것을 반동할計劃을 作成합니다. 21. 資本國家의 軍隊는 알지 못하는 勞働者들을 돈으로 사아서 세, 세, 세. 르를 정탐합니다. 24. 資本家들이 戰爭을 準備하니 勞働者와 農民은 그에 反對하여 반동運動을 進行합니다. 25. 우리는 제국主義者들의 作戰計劃을 자세히 알아運動할입니다.

제十三	3. 척후와보초는 가는곳地理와敵軍의事情을 잘살필줄알아야합니다. 4. 척후가敵軍의形便을정답할줄모르면勝利하지못합니다. 6. 이곤루어느때에敵軍이오았습니까? 나흘전에敵軍이八百五十名이오았습니다. 12. 붉은軍隊의규율이튼튼하지못하면푸로레타리아트의利益을擁護할수없을것입니다. 13. 敵軍에게많이선전하면軍人들이反動하여逃走할수있습니다. 15. 敵軍의形便을잘살피어攻擊하면勝利할수있습니다. 16. 붉은軍隊의힘은資本國軍隊가침범하여들어오는것을防禦할수있습니다. 20. 戰爭에는軍糧을많이準備하여야勝利할수있습니다. 21. 敵軍의형세를정답한척후는달어오와서그事情을報告합니다. 22. 資本國家의軍人들은資本家를反動하여어떻게勝利할줄을모릅니다. 23. 資本家들이이렇게새戰爭을準備할때에선전사업을 잘 하면勝利할수있습니다.
-----	--

7과 본문부터 뒤로 갈수록 2-6과에 비해 한자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8과부터는 띄어쓰기가 줄어드는 특징이 나타난다.¹³⁾ 한자의 사용으로 인해 의미 단위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띄어쓰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광복 이후에 발간된 황동민의 『한국어 교과서 제1편』(1946)은 8·15 해방과 조선의 지리,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문장들로 구성되었다.¹⁴⁾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은 러시아 지역에서 발간된 초기 한국어 교재로, 일제강점기에 집필된 점을 감안할 때, 소련의 사회적 성격과 사회주의적 배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13) <표2>와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2-6과 본문에서는 띄어쓰기 면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제 일 두드러진 것은 ‘철필과연필’, ‘담배와조피’, ‘닐곱과셋’, ‘男子의옷과女子의옷’, ‘흰신발과검은신발’과 같이 ‘-와/과’가 결합하는 경우, ‘동무의책’과 같이 ‘-의’가 결합하는 경우, ‘닐곱동무’, ‘한킬로’와 같이 수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 ‘칠관앞’, ‘학교뒤’, ‘점심뒤에’와 같이 명사와 ‘앞/뒤’가 결합하는 경우, ‘저사람’, ‘그동무’, ‘무슨옷’, ‘조피뿔장’과 같이 대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또한, 일관성은 없지만 방향격 표지로 제시된 ‘-루’, 여처격 표지 ‘-에게’, 도구격 표지 ‘-로’가 앞의 명사와 띄어 쓰는 몇 예가 발견된다. 예는 아래와 같다.

시계가 누구에게 있소? 시계가 저동무에게 있소. (제4:4)

동무가 어대루 가오? 나는 구락부 루 가오. (제4:6)

당신이 어제 독서실 루 가았소? 나는 어제 독서실 루 가았소. (제4:7)

낮에 독서실 루 가았소. (제4:17)

밤에 구락부 루 가았소. (제4:18)

共利社에서 떡을 길로 로 파오. (제6:8)

14) 김해관, 「러시아권 한국어 교재의 통시적 연구 - 19세기말에서 1990년 이전 한·러 교재를 중심으로 -」,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93쪽.

본문에 이어 한국어-러시아어 대역 자료가 제시되며, 여기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국어 단어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제시하고 있다. 1-2과에서는 한국 고유어와 그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번역만을 제시하였다. 3-5과에서는 한-러 대역 자료에 한자, 한자음, 러시아어 번역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6과 이후부터는 한국 고유어와 한자어가 혼합된 형태로 구성된 한-러 대역 자료가 제공되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학습자가 한국 고유어 어휘뿐만 아니라 한자어를 읽는 방법과 의미까지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대역 자료는 단순한 단어 번역의 기능을 넘어, 학습자가 한국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과와 6과의 한-러 대역 자료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7-		-28-	
소	- яблочко	글	- грамота, письменство.
선	- тридцать	그림	- рисунки
흔	- сорок	그리다	- рисовать
미	- пятьдесят	쉬다	- отдыхать
십	- шестьдесят	어떠한	- какой
에	- семьдесят	벽신문	- газета стенная
닐	- восемьдесят	구락부	- клуб
흔	- девяносто	비교표	- сравнение
아	- сто	얼바	- склянка
흔	- тысяча	사무실	- канцелярия
위	- цитата велика	병	- бутылка
다	- мчи		
분	- чернила		
필	- учебная записка, школа		
인	- заведующий школой, репетитор		
크	- товарищ		
학	- собрание		
교	- библиотека		
상	- читальня		
동	- ва		
무	- на дню		
회			
의			
도			
서			
간			
독			
서			
실			
예			
이			
사			
이			
어			

〈사진2〉 3과에 제시된 한-러 대역 자료



〈사진3〉 6과에 제시된 한-러 대역 자료

한-러 대역 자료 다음에는 과제(задание)가 이어진다. 이 부분은 과제라고 명명되었지만, 실제로 학습자가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문법 부분에서는 한글의 소리와 발음의 시작으로 명사, 격, 수, 동사와 형용사, 시제, 어순, 경어법, 부정형 등 한국어 습득에 필요한 기초 문법을 러시아어로 설명하고 있다. 1과부터 13과까지의 과제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4〉 『한국어 학습서 1학년 제1편』 각 단원에서의 과제 내용

단원	내용	단원	내용	단원	내용
제一	소리와 한글 발음과 규칙 한글 쓰는 순서 강제	제六	도구격 형용사 복수형	제十	형동사형
제二	주격과 비교격 동사(기본형; 현재시제)	제七	경어법 등급	제十一	조건형 것
제三	한국어의 수	제八	의문형 동사의 부정형	제十二	인과 관계
제四	대격과 여처격, 방향격 동사의 과거시제 명사의 수식 기능	제九	복합 동사	제十三	가능 구문
제五	속격과 탈격 동사의 미래시제 어순				

황동민의 『한국어 교과서 제1편』(1946)에서는 ‘과제’ 대신 ‘연습’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쉬운 읽기에서 시작하여 한국어 문장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¹⁵⁾ 본고에서 다루는 교재는 러시아 지역의 초기 한국어 교과서이므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4.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의 특성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의 어휘적 특성, 문법적 특성, 그리고 구문적 특성을 살펴본다.

1) 어휘적 특성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의 본문에서 단어가 다르게 표기되거나 본문과 한-러 대역 자료에서 제시된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 여기서는 본문의 단어와 한-러 대역 자료에 제시된 단어를 모두 제시하겠다. 1과에서는 현대 한국어 표기와 차이를 보이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2과부터 13과까지는 주로 현대 한국어와 표기가 다르거나 의고적인 어휘들이 나타난다. 각 단원에서 발견된 단어들을 현대 한국어 표기와 함께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5〉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에 제시된 어휘

단원	어휘
제二	조희(종이), 철필(펜), 다숫(다섯), 배호다(배우다), 여숫(여섯), 여늬(여덟), 님곰-일곰(일곱)
제三	몇~몇(몇), 습흐~습홀(스물), 늬다(읽다), 습홀다숫(스물다섯), 설흔(서른), 마순-마흔(마흔)
제四	어대(어디), 아츰(아침), 결상(장외자), 류리창~유리창(유리창), 일긔~일기(일기), 조희(종이), 습흐인홀스물이틀, 래일(내일), 인홀(이틀), 님해(이레), 할리(각 달의 첫째 날)

15) 김혜란, 앞의 논문, 99쪽.

제五	배채(배추), 배채국(배춧국), 햄새(반찬), 감자햄새(감자 반찬), 씻다(씻다), 리발소(이발소), 배호다(배우다), 안녕하오~안녕하오(안녕하오), 아침(아침), 얼굴(얼굴), 철필(펜)
제六	모스크바(모스크바), 공리사(共利社)(소비조합 상점), 래일(내일), 길로(길로), 녀름~여름(여름), 낚다~입다(입다), 겨울(겨울), 열마식(열마씩), 칩다(출다), 구주(구두), 아침닐곱시(아침 일곱 시), 일괴(일기), 낚다(읽다), 구락부(클럽), 첫재(첫째), 둘째(둘째)
제七	뉘(누구), 향상~향상(향상), 기술~기술(기술), 기사(기사), 기계~기계(기계), 트락뿔(트랙터)
제八	로씨야(러시아), 푸로레타리아트(푸롤레타리아트), 쏘베트(소비에트), 재(둘째), 꼴호스(콜호스), 로력(勞力)(노력), 겨울(겨울)
제九	빨이(빨리), 실다(신다), 빨르다(빠르다), 더되다(더디다), 트락뿔(트랙터), 로력(勞力)(노력)
제十	수씩하다~수삭하다(수색하다), 래일~내일(내일), 밧다~받다(받다), 맛나보았습니다(만나 보았습니다), 같오다(같다), 명요하다(명료하다)
제十一	규률(규율)
제十二	구락부(클럽), 래일(내일), 물다(묻다), 곧(긋), 종(적), 낚다(입다), 리익(이익), 이러나다(일어나다)
제十三	곧(긋), 규률(규율), 명영~명령(명령), 달여오다(달려오다), 얻호면(얻으면), 우반할(운반할), 달여오다(달려오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조희(종이), 배채(배추), 햄새(반찬), 감자햄새(감자 반찬), 칩다(출다)’와 같이 방언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조희’는 경남, 충남 방언, ‘배채’는 충북, 평안, 함경 방언, ‘햄새’는 함남 방언, ‘칩다’는 강원, 경상, 함경 방언으로 나타난다.

또한, ‘구락부’, ‘꼴호스’, ‘트락뿔’ 등의 음역어들도 포함되어 있다. ‘구락부’는 ‘俱樂部’, ‘구주(구두)’는 ‘kutsu < つ>’와 같은 일본어계 외래어와 ‘꼴호스(콜호스), 트락뿔(트랙터), 로씨야(러시아), 쏘베트(소비에트)’와 같은 러시아어계 외래어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교재에서 보이는 어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구락부’는 영어 ‘club’을 일본어에서 한자로 음역한 ‘俱樂部’가 한국어에 다시 수용된 단어이다.

이 외에도 ‘철필(펜), 걸상(장의자), 할리(하루)’와 같은 의고적인 어휘들도 보인다. 특히, ‘할리’는 4단원 한-러 대역 자료에 제시된 단어로, ‘정월 할리, 이월 할리’와 같이 ‘각 달의 첫째 날(первое число)’을 의미한다.¹⁶⁾ 러쓰

16) 익명의 심사자 분께서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에 ‘할리’는 ‘하루’의 단독형 및 주격형으로 되어 있고 곡용형으로는 ‘할릴, 할랄, 할를’ 등이 등재되어 있으며, 합성어로는 ‘할를날’ 등이 등

킹·연재훈(1992)에 따르면 ‘칩다, 철필, 구주, 햄새, 할리’는 고려말에서도 사용되는 어휘로 나타난다. 한편, ‘공리사(共利社)(소비조합 상점), 종(적)’과 같은 생소한 어휘도 보인다.

표기 면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할 만하다. 우선, ‘넙다, 널굽, 리익, 로력’ 등과 같이 첫음절에서 현재와는 달리 두음 법칙이 미반영된 표기를 보여주는 경우가 보인다. 이 현상은 첫음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령하오, 규틀’ 처럼 두 번째 음절에서도 ‘ㄹ’로 표기된 경우가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괴사, 괴술~괴술, 괴계, 일괴, 더되다’와 같이 자음 ‘ㄱ’이나 ‘ㄷ’ 뒤에 모음 ‘-니’가 오는 단어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들 중 ‘괴술~괴술, 괴계, 일괴’는 ‘기술, 기계, 일기’와 같은 형태로 표기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류리창~유리창, 래일~내일, 넙다~입다, 녀름~여름, 널굽~일굽, 명영~명령, 몇~몇, 향상~향상, 슴흐~스름~스물’ 등 한 단어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표기를 보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철자법이 당시에는 일관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틀’을 ‘일흘’과 같이 연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 외에도 ‘신다, 묻다’는 ‘실다, 물다’와 같이 ‘ㄹ’ 받침으로 표기된 것도 발견된다.

한편,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에서는 한국어 어휘의 특성 중 하나로 ‘신다’와 ‘입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신발을 넘소? 신발은 신소.’(제六:10)와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2) 문법적 특성

문법적으로 이 교재는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우선, 불규칙 활용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눅다’, ‘덥다’, ‘춡다’와 같은 용언이 ‘누웠어’, ‘더울 때’, ‘추울 때’와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한다. 그러나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사용하지 않고 ‘당신이 어대에

제되어 있다고 한다. 강원, 평안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정월 할리’, ‘이월 할리’ 등의 ‘할리’가 ‘하루’와 뜻이 통한다고 한다.

눅엇소? 나는 침대에 눅엇소.’(제四:16), ‘답은때는 너름이오. 칩은때는 겨을이오.’(제六:13)에서와 같이 ‘눅엇소’, ‘답은 때’, ‘칩은 때’와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다음으로는 격이다. 이 교재에서는 격을 아래와 같이 여덟 가지로 나누었다.

주격: 이, 가	방향격: 루, 으루
비교격: 은, 는	속격: 의
대격: 을, 를	탈격: 에서, 에게서
여처격: 에, 에게	도구격: 로, 으로

위에서 보듯이, 이 교재에서 나타나는 격들 중 현대 한국어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로/으로’와 ‘루/으루’의 구분이다. ‘로/으로’와 ‘루/으루’는 각각 도구격과 방향격 표지로 분류되어 있다. ‘로/으로’는 ‘학생들이 공책에 무엇으로 글을 쓰오? 학생들이 흰공책에 붉은 연필로 글을 쓰오.’(제六:7), ‘五年전에社會運動으로 피착되앗든 나의동무가어제우리집에오왔습니다.’(제十:24), ‘資本國家의軍隊는알지못하는勞働者들을돈으로사아서 췌. 췌. 췌. 르를정담합니다.’(제十二:21)에서처럼 도구, 원인, 수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루/으루’는 ‘동무가 어대루가오? 나는 집으루가오.’(제四:1-2), ‘조선으루鐵路가 통하엿습니다.’(제九:5)에서처럼 방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로/으로’가 일반적으로 도구, 원인, 수단, 방향 등 용법으로 모두 사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다음은 주격 표지 ‘가’이다. 대명사 ‘누구’와 결합할 때, 이 교재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누가’ 대신 ‘누구가’ 또는 ‘뉘가’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누구가 가르치오’(제二:3), ‘工場에서 뉘가 일하오?’(제七:1) 등이다.

여처격 표지 ‘에’는 4과부터 나타나며, ‘나는 아침에 집에 있엇소.’(제四:8), ‘교원이 어대에 서엇소?’(제四:10), ‘동무는 어느때에 집으루 가앗소?’(제四:12), ‘어제아침때에 일기가 좋앗소.’(제四:21), ‘햄새에 소금이 있

소.’(제五:6), ‘예, 점심에 배채국을 먹었소.’(제五:1) 등에서 보듯이 현대 한국어 용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래일에올사람이 오늘에편지를 보내었습니다.’(제十:27), ‘래일에시간이있으니農村으루갈것입니다.’(제十二:4)와 같이 시간 명사 ‘내일, 오늘’ 뒤에 ‘에’가 결합되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제 표지는 다음과 같다. 과거시제는 ‘교원에게서 글을 배호앗소.’(제五:15), ‘철필과연필을 학생에게 주었소.’(제五:25), ‘쎄. 쎄. 쎄. 르에서五年計劃을四年에實行하엿습니다.’(제八:8)와 같이 ‘-앗/엇/였-’으로 표기되어 있다. 미래시제는 ‘래일저녁에 목욕간으루 가겟소.’(제五:7), ‘그포로병에게 말을 물어보겟습니다.’(제十二:6)와 같이 ‘-겟-’으로 표기되어 있고 용법은 현대 한국어와 같다.

한편, 과거 시제 표지 ‘-앗/엇/였-’, 연결어미 ‘-아/어/여-’, ‘-아서’는 용언어간과 결합할 때 음절의 수와 상관없이 축약되어 표기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어제 점심때에 집으루 가앗소. (제四:12)

어제저녁에 비가 오앗소. (제四:25)

로씨야에서는 언제 푸로레타리아革命이승리하엿습니까? (제八:1)

래일에올사람이 오늘에편지를보내엇습니다. (제十:27)

붉은군대는勞働者와農民으로조직되엇습니다. (제十一:1)

나는飛行機를 타아보앗습니다. (제九:17)

日本勞働者들의經濟形便은向上되지못하여깁니다. (제九:23)

守備하는힘이적으면공격하는힘이크어깁니다. (제十一:21)

資本國家의軍隊는알지못하는勞働者들을돈으로사아서 쎄. 쎄. 쎄. 르를정탐합니다. (제十二:21)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의 본문은 주로 응답문 또는 평서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문형과 서술형 종결어미를 사용한다. 2과

부터 6과까지는 주로 ‘오/소’ 종결어미를 사용하였고 7과부터 13과까지는 주로 ‘ㅂ니다/습니까’와 ‘ㅂ니다/습니다’를 사용하였으며 ‘오/소’도 가끔 나타난다. 예는 <표2>와 <표3>과 같다.

3) 구문적 특성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에서는 구문적 차이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무슨때문에’는 현대 한국어에서 ‘무엇 때문에’로 표현되고 ‘무엇인것을아오?’는 현대 한국어에서 ‘무엇인지를 알아?’로 표현된다. 각각의 예는 아래와 같다.

무슨 때문에: 당신이무슨때문에 이끈으루오앗소 (제十二:8)

무엇인것을아오?: 당신이資本國家의軍人이무엇인것을아오? 예. 資本國家
의軍人이資本家の종인것을아오. (제十二:9)

또한, 단위명사 ‘킬로’를 ‘일 킬로’가 아니라 ‘한킬로’로 세는 점도 특이하다. 예는 아래와 같다.

共利社에서 흰떡 한킬로에 얼마식 하오? 共利社에서 흰떡 한킬로에 三十전식 하오. (제六:12)

共利社에서 소고기 한킬로에 얼마식 하오? 共利社에서 소고기 한킬로에 一圓二十전식 하오. (제六:19)

5. 결론

모스크바에서의 한국학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 중 하나인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서 시작되었다. 1922년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의 극동학

부에는 중국어계와 일본어가 있었다. 중국어계에는 북부 중국어, 남부 중국어, 한국어와 몽골어가 포함되었다. 당시 한국어 강좌가 있었으나, 일본 식민지 시기 때문에 러시아 고등 교육 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30년대에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서는 외국어 교육 체계의 재구성을 위해 외국어 교재 총서를 기획하였으며, 본고에서 다룬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도 이 총서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 교재는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 홍김표, 김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1932년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되었다.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은 일제강점기 러시아에서 편찬된 한국어 교재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기본 문형, 어휘, 문법까지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학습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러시아의 초기 한국어 학습서로서 부족한 점이 있으나, 이후 한국어 학습서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당시 소련의 사회적 성격과 사회주의적 배경, 조선의 상황까지 반영하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찬된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1945년 한국 해방 이후, 황동민의 주도로 1945년 9월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극동학부에서 모스크바 최초의 한국학과가 설립되어 체계적인 한국어 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46년 모스크바 동양학대학 출판부에서 황동민의 『한국어 교과서 제1편』이 발행되었다. 이 교재는 모스크바 최초의 대학용 한국어 교재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 다룬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은 당시 극동학부에서 한국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1932년 동일한 출판부에서 발행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과서 1학년 제1편』이 모스크바 최초의 대학용 한국어 교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모스크바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1945년 모스크바 동양학대학에 한국학과가 설립된 이후의 학자들과 그들의 업적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박 니콜라이 바실예비치, 홍김표, 김 등 초기 학자들은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들이 집필한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교육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교재는 황동민, 황윤준, 한득봉 등 후대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학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만약 이들 고려인 학자들의 기여가 없었다면, 러시아에서의 한국학은 오늘날의 위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충구,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 태학사, 2019.
- 권재일, 『중양아시아 고려말의 문법』, 서울대학교출판원, 2010.
- 金敏洙 · 高永根 · 崔鎬哲 · 崔炯龍 편, 『歷代韓國文法大系(II)』, 第2部 第46冊, 박이정, 2015.
- 김혜란, 「러시아권 한국어 교재의 통시적 연구 - 19세기말에서 1990년 이전 한·러 교재를 중심으로 - 」,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러쓰 킹 · 연재훈, 「중양 아시아 한인들의 언어 - 고려말」, 『한글』 217, 한글학회, 1992.
- Васильков В.Я. & Сорокина М.Ю., *Люди и судьбы: Библиол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востоковедов -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ого террора в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1917-1991гг.*,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2003.
- Дмитриева В.Н., “О днях былых москов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уск 3. Москва, 2003.
- 김 X., Исследование учебн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фессора Дон-Мин Хвана -пионе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России, *Russian Linguistic Bulletin* 6(34), 2022.
- Концевич Л.Р.,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б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а также учителях, определивших мой выбор профессии корееведа и повлиявших на мою судьбу”,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Том 3. Современное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справочное издание*. Сост. Т. Симбирцева, Л.Р. Концевич. М.: Первое марта, 2006.
- Пак Н.В & Хон-Ким-Пио & Ким, *Учебн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рс 1 Часть 1*, Серия Учебники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вып.2, М.: Издание МИВ, 1932.
- Торкунов А.В. *Главы из истории московского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Лазаревский институт -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 МГИМО*. Под общ. ред. Академика РАН А.В. Торкунов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пект Пресс», 2015.

Koryo Scholars and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Grade 1- Column 1* of the Moscow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Kalina*

Park Nikolai Vasilyevich, Hong-Kim-pyo Leonid Petrovich, and Kim were scholars, who worked at the Moscow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lives of these three scholars and to analyze the system,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a book names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Grade 1 - Column 1* written by them in 1932.

It is found that the first Korean language textbook which had been used in universities in Moscow was *Korean Language Textbook Column 1* written by Hwang Dong-min, and it was published by the Moscow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Press in 1946. On contrast,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Grade 1 - Column 1* discussed in this paper was not used because Korean language classes were not offered in the Department of Far East at the Moscow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at the time. However, considering that it was published by the same press in 1932, it is highly likely that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Grade 1 - Column 1* is the first Korean language textbook used for universities in Moscow.

This paper aims to highlight the contributions of these three scholar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Moscow. It is believed that this would have influenced later scholars as well.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Key words : Moscow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scholars, Korean language textbook, system, contents, characteristics